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        |     |                                         |    |
|--------|-----|-----------------------------------------|----|
| G1방송   | 온라인 | 시·도의장협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 1  |
| KBS 춘천 | 온라인 | 시도의회의장협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 1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용문~홍천철도 균형발전 차원 조기 착공을"                | 2  |
| 江原日報   | 03면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힘 모으자”                    | 3  |
| 江原日報   | 03면 | 전국 시도의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 3  |
| 연합뉴스   |     | 시도의장협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         | 4  |
| 江原日報   | 온라인 | 강릉 주문진서 '국민 횡감' 강도다리 방류행사 열린다           | 5  |
| 江原日報   | 19면 | [강원포럼] 혁신과 공정,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             | 6  |
| 강원도민일보 | 23면 | 도의회 경제산업위 도 베트남 본부 점검                   | 7  |
| 강원도민일보 | 13면 | 제21기 민주평통 홍천군협 출범                       | 7  |
| 江原日報   | 04면 | 철책선 따라 524km ... '평화 발자국' 찍는다           | 8  |
| 江原日報   | 21면 | “지방의회, 강원자치시대 혁신적 발전 역할 강화”             | 9  |
| 江原日報   | 13면 | 동자개·쏘가리 치어 방류                           | 9  |
| 江原日報   | 온라인 | “강원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 10 |
| 강원도민일보 | 11면 | [동정] 김기영(왼쪽) 시의장·박호균(강릉) 도의원            | 11 |
| 강원도민일보 | 09면 | 춘천 우두동 옛 강원농기원 부지 개발 돌입                 | 11 |
| 강원도민일보 | 01면 | 도 세수결손 '최대 4100억원'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 12 |
| 강원도민일보 | 04면 | 글로벌대학30 계획서 제출 임박...도내 예비대학 준비 한창       | 12 |
| 江原日報   | 01면 | "GTX-B 춘천 연장 최우선 순위" 청신호 켜진 道 핵심 SOC... | 13 |
| 江原日報   | 03면 | 원희룡 장관 1호 명예자치도민 됐다                     | 14 |
| 江原日報   | 06면 | 도내 세입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41억원'               | 15 |
| 강원도민일보 | 01면 | 오늘 양양~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협약                   | 16 |
| 강원도민일보 | 02면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 끝났다                  | 16 |
| 강원도민일보 | 19면 | [사설] 강릉 국제관광도시 도약 호기                    | 17 |
| 강원도민일보 | 19면 | [사설] 예산부족 국세 59조, 지역 여파 우려              | 18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19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취항에 거는 기대           | 20 |

2023년 09월 18일 (월)

G1방송

강원

## 시·도의장협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8

G1NEWS

## 시·도의장협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주요뉴스 영월군, 덕포시장길 야시장 다음 달 6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충남 부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은 교통 소외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제안했습니다.

또 2023 강원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 09월 18일 (월)

KBS 춘천

강원

## 시·도의회의장협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18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권 의장은 '용문~홍천 철도'가 수도권 동부와 강원 중부 내륙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문~홍천 광역철도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승룡 oberona@kb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3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는 18일 충남 롯데리조트부여에서 2023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용문~홍천철도 균형발전 차원 조기 착공을”

## 전국시도의장협 건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한목소리로 건의하고 나섰다.

시도의장협은 18일 충남 롯데리조트부여에서 2023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홍천 철도유치는 주민 100년 염원”이라며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적, 물적 자원, 교통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기

본적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 보다 형평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며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 가치가 큰 사업이다. 시도의장협은 국가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들에게 오는 22일

개막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참여 등 전 세계 최초로 열리는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설화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3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힘 모으자”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장)는 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6차 임사회를 갖고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3면

## 전국 시도지사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지역 균형발전” 건의안 가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사회를 개최한 협의회는 권혁열 강원자치도지사가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에는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올 3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이달 말로 연기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길연(충남도의장) 협의회장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보다 ‘형평성’과 ‘국토균형발전’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홍천~용문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부와 강원 중부 내륙지역 주민의 100년 염원이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할 현안 과제”라며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홍천~용문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열 의장은 오는 22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불임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09월 18일 (월)

종합

## 시도의장협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서울역에서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건의안은 교통 소외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밀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올해 3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오는 9월 말로 연기되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홍보하며, 붐업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onanys@yna.co.kr

엔사이드, 누리일보 등 43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8일 (월)

사회

## 강릉 주문진서 '국민 횡감' 강도다리 방류행사 열린다

19일 주문진 어촌계 마을해역서 실시  
동해안 6개 시·군서 총 30만 마리 방류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19일 강릉 주문진서 강도다리 방류 행사를 연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따르면 19일 강릉 주문진 어촌계 마을해역서 강도다리 5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과 권혁열 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필수지방산 함량이 높고 육질 탄력이 우수한 강도다리는 소비자와 어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횡감이다. 도는 최근 강도다리의 자원량이 감소하자 인공종자 생산을 통해 어업자원을 유지시키고자 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동해안 6개 시·군을 순회하며 5만 마리씩 방류해 총 3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양양을 시작으로 동해와 고성에서 방류를 마쳤으며 20일에는 삼척, 22일에는 속초서 방류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동해안 시군별로 성공적으로 방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원량 회복을 통해 어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江原日報

혁신은 묵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혁신이 이익적 생태계 구축이 주 목적이라면 공공의 혁신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더불어 성공적인 지방행정 혁신은 객관적인 검증과 현실적인 사례, 지방

특성에 맞춘 전략이 수반돼야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공공부문 혁신은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정직하고, 정

교하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과거의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난 최문순 도정 12년의 혁신은 모호하고 실망스럽기만 한데 ‘반면교사’로 삼아 공유하고자 한다.

최문순 도정의 ‘일단 시켜’, ‘우리도(나야나)’, 전기차 ‘디피코’, 드론 ‘시제기’ 등은 도민들의 공동번영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사업은 도정책임자로서 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해 ‘더 잘못된 결과’로 막을 내렸다고 단언할 수 있다.

2020년 ‘일단시켜’ 출시 이후 올 7

##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월까지 총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2만3,000여명, 도내 전체 인구 153만여명의 8%에 불과하다. 또 퇴임을 불과 2개월여 앞둔 2022년 4월 국·도비 34억9,000만원, 민간투자 16억6,000만원 등 개발에만 51억5,000만원이 투입된 ‘우리도(나야나)’는 올 7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명에

불과할 뿐이다. 2020년 5월 횡성으로 본사를 이전한 전기차업체 디피코는 도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임금체불 등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올 8월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으므로 불과 3년여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

올 6월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액화 수소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

2023년 09월 19일 (화)

오피니언 19면

니어링(주)을 사업대상자로 사전 내정 후 채권 확보 없이 지원한 사업비만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와 대형투자사업은 어

떠한가. 사업의 가장 기본인 ‘왜 하는가’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뒤로한 채 도민들 위에 특정 기업, 특정 집단들이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강원자치도의 공공 직간접 분담액 7,380억원을 쏟아부은 레고랜드 사업은 최문순 도정이 재임 기간 내내 매달렸지만 결국 기대 효과는 애초 예상에서 한참 벗어나 있

다. 동해안

권경제자유

구역청 지정

사업자는 전

세사기범이 만든 허울뿐인 투자자였고, 알펜시아 역시 희대 기업사냥꾼의 농간에 놀아났음이 드러났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떡튀’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정 12년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사법체계의 몫이며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은 다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최문순 도정 12년은 ‘혁신’으로 위장한 ‘떡튀’의 시간이었음을.

## 혁신과 공정,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인물 23면



**도의회 경제산업위 도 베트남 본부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베트남 본부 운영을 점검했다.

사진 제공=도의회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지역 13면



**제21기 민주평통 흥천군협 출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흥천군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가 최근 흥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인철 민평통협의회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흥천군수, 이영욱 도의원, 박영록 군의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년 09월 19일 (화)

사회 04면

江原日報

## 철책선 따라 524km ... '평화 발자국' 찍는다

## DMZ 자유·평화 2차 대장정

정전 70주년 기념 접경지 횡단  
고성 통일전망타워에서 출정식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거쳐  
24일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 도착

DMZ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출정식이 18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자유 가치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엄윤순 도의회 접경특위 위원장, 최명수 화천부군수, 박유식 양구부군수, 황은성 22사단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민간인 통제선을 걸을 때 우리가 정전 중임을 실감하고 청정자연과 대비되는 처절한 전쟁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조들과 16개 참전국 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후손들이 함께 지켜내자는 의지를 모아 사고 없이 완주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자유와 평화에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며 “DMZ를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금강산이지만 갈 수는 없는 땅이 고성이며 평화 속에서도 긴장감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오늘 이자리는 평화를 갈망하고 가야 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라며 의미를 전했다.

원정대는 이날 출정식 직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경기 연천을 거쳐 24일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접경지역을 횡단할 예정이다. 대장정 코스는 DMZ 평화의 길 524km 구간으로, 원정대원들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게 된다. 김천열기자 history@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DMZ 자유·평화 대장정' 출정식이 18일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출정식을 마친 원정대가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으며 걸어가고 있다. 고성=박승선기자



## “지방의회, 강원자치시대 혁신적 발전 역할 강화”

“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으로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 제253차 시도대표회의가 18일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봉환 부산시 금정구의회의 의장) 주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일용 고성군의회의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과 지역 간 수도요금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수도 설치 비용 및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비자발급 절차를 일원화

고성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김진호·이재용·이동호·심현정·박기준·노이업·함용빈 봉사상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3차 시도대표회의가 18일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려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도내 시·군의원들이 상패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박승선기자

해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 등을 채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장과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김용복 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영식에서는 방문기념패 및 기념품 전달을 통해 지역 간 화합을 다지며 지역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간담회 시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이재용 원주시의장, 노이업 화천군의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박기준 철원군의장, 함용빈 고성군의원 등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일용 고성군의장은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김천열기자 history@



동자개·쏘가리 치어 방류 강원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와 인제군은 18일 인제군 남면 신남선착장에서 엄윤순 도의원과 지역 어민, 도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자개·쏘가리 종자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8일 (월)

사회

## “강원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강원특별자치도.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  
제12회 강원청소년지도자대회  
18~1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김진태)가 주최하고 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강석연)가 주관한 ‘제12회 강원청소년지도자대회’가 18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막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제12회 강원청소년지도자대회’가 18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센터와 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상담·보호·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63개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삼척시청소년지도자들이 기획한 축하공연 ‘불편한 사이’를 시작으로, 김준영 대원대 청소년지도과 교수의 ‘2023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조사 및 근로 실태 조사’를 주제로 한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 ‘마음을 잇는 다리’를 주제로 청소년과 지도자의 관계 강화 교육과 함께 지도자들의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대회도 함께 열렸다.

‘제12회 강원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 시상식’도 열려 한윤지 원주시청소년수련관 활동가를 비롯해 이준철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활동가, 김민우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가, 이인우 강원자치도일시쉼터(고정형) 보호가 등 4명에게 도지사상이 전달됐다.

강석연 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지도자대회를 통해 그동안 위축됐던 청소년 활동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지도자들의 발걸음, 강원도의 아름다움 만나다’를 주제로 지역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와 원제용 도의원, 이상분 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등이 참석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인물동정 11면



김기영(왼쪽)시의장·박호균(강릉)도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옥계면 현내시장길에서 열리는 옥계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지역 09면

### 춘천 우두동 옛 강원농기원 부지 개발 돌입

강개공 개발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주변 사유지 대상 포함 여부 논의  
이르면 올해 말 기본안 도출 전망

춘천 우두동 옛 강원농업기술원 도유지(21만㎡)에 대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첫발을 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개발공사는 이날 강원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타 시·군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춘천 우두동 개발사업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일대 부지 규모는 21만㎡로,

이 주변의 사유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발내용은 앞서 춘천시와 강원도가 지난해 말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과 같이 북부공공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예술공간 조성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 일대 사업구역은 교육지구, 공연·예술지구,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이번 용역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사업의 기본 열거는 중간용역보고회가 열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쯤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도와 시

는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 강원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는 공동시행을 맡기로 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

2023년 09월 19일 (화)

## 강원도민일보

종합 01면

## 도 세수결손 '최대 4100억원'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기재부 올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당초비 59조원 부족 '사상 최대'  
도 예산 감액·축소 조정 초긴장  
도교육청 2회 추경 편성 않기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평균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최대 4100억원이 빠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관리예비금이 고갈됐다.

지방정부와 일선 교육청 등에 지방재정난이 예고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 등 허리띠 졸라매기 작업이 본격화됐고, 도교육청은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월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 규모(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수출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25조4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말까지 거둬들일 일 강원도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가뜰이나 열악한 강원 재정 공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보통교부세는 국세 중 하나인 내국세의 19.24%에 연동된다.

도는 정부의 줄어든 세수를 감안할 경우 강원도 및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상보다 2151억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

## 2023년도 강원도 지방세 세입 현황

재정/기획재정부·강원특별자치도

- 내국세 세입 전체 규모 ..... 358조원
- 강원도 보통교부세 ..... 1조 2651억원
- 강원도 지방세 ..... 2조 463억원

## I 세수 재추계(2023년도 전체-강소 추정치 규모)

- 내국세 세입 ..... 303조 1000억원  
(-54조 9000억원)
- 강원도 보통교부세 ..... 1조 500억원  
(-2151억원)
- 강원도 지방세 ..... 1조 8463억원  
(-2000억원)

소액 등을 포함할 경우 강원도 전체 세수 결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실국에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예산 감액 및 축소 조정 작업에 바쁘다. 도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올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감축·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비상이다. 도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해 줄어든 세수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본예산을 합쳐 7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도교육청은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고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 예산은 집행가능 예산으로 조정하고, 내년이 될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 구조조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2023년 09월 19일 (화)

## 강원도민일보

종합 04면

## 글로벌대학30 계획서 제출 임박...도내 예비대학 준비 한창

한림대 "3대 융합클러스터 구축"  
연세연주 "한학일체 세모델 제시"  
강원·강릉원주대 "1도1국립대"

선정된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대학에 선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1도1국립대' 추진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한 강원대·강릉원주대는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았고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대학 특성화 전략을 고심 중이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한림대는 'AI교육 기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을 비전으로 실행계획서를 준비 중이다. 3대 융합클러스터(인문·사회·AI, 의료·바이오)를 통해 대학구조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기존학과와 전공은 해체, 소단위로 개편하며 융합전공의 유연한 개설과 폐지를 통해 산업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구조다. 이밖에 일부 전공의 경우 입학학생 모집단위 광역화와 신·편입생 무전공 선발 등도 추진된다.

18일 동해시와 지역특화사업 발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와의 연결고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림대 관계자는 "대학 내벽 허물기가 중점"이

라며 "융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속 변경이 더 자유로워진다. 벽을 허문 교원 인사, 자유로운 소속 변경은 다른 학교가 흉내낼 수 없는 내용"이라 자신감을 보였다.

연세대원주캠퍼스역시혁신기획서를 중심으로 융합교육혁신, 지역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로 실행계획서를 작성 중이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체 지역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연세대 미래는 혁신기획서에서 데이터 중심 지·산·학 생태계 구축과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한 연세 의료-AI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대학이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세대 미래 관계자는 "보건의료·희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일체형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밝혔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최근 구성원 투표를 통해 '1도1국립대' 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두 대학이 밝힌 1도1국립대의 개념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멀티캠퍼스 공유·연합·통합 모델(다층적 특성화 기반 기능적 융합모델)'이

다. 춘천·원주·강릉·삼척 캠퍼스는 각각 △춘천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원주 디지털헬스케어·반도체·E-모빌리티 △강릉 신소재·해양생명·천연물바이오 △삼척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등의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이 진행된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표 후 대학생·명목 커뮤니티인 예비타임에는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들이 오르기도 했다.

최한결 강원대 총학생회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학생대의회가 자의적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의원이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1면

# “GTX-B 춘천 연장 최우선 순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청신호 켜진 道 핵심 SOC사업

**국토부 장관, 김진태 지사 면담서 강력 추진 약속**

확정 미뤄지던 상황 장관이 직접 거론... 잇단 우려 일축  
‘용문~홍천 철도’ 내달 기재부에 예타 신청 계획도 밝혀  
김 지사 ‘원주~춘천~철원 내륙鐵’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와 용문~홍천 철도,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철도사업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5차 국가철도망 반영 등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원희룡 장관은 GTX-B 춘천 연장은 ‘전국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용문~홍천 철도는 10월 중 예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철도 등은 김진태 도정 핵심 SOC 사업으로 최근 정부의 판단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으나 국토부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B 춘천 연장 사업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지원을 건의했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원주~춘천~철원 내륙순환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GTX-B 노선은 긍정 검토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10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하고 원주~춘천~철원 내륙순환철도사업 국가철도망 반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GTX-B 춘천 연장은 2025년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강원지역 유력한 1순위 사업이

다. GTX-B 춘천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확정 자체는 미뤄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 6월 GTX-B 춘천 연장 등이 담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말로 연기됐다. 2030년 개통 예정이지만 경기 구리시 등에서 정치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용문~홍천 철도는 이달 말 사전타당성용역 조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지며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일었다. 하지만 이날 김진태 지사의 건의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밝히는 등 우려를 사실상 일축했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의 관심으로 강원지역에서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막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철도,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3면

## 원희룡 장관 1호 명예자치도민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원특별자치도 1호 명예도민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주 원씨 출신·SOC 기여” 김진태 지사 양구백자 선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를 전달했다. 원 장관은 강원자치도 출범 후 첫 번째 명예도민이 됐다.

강원자치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주를 뿌리로 둔 원주 원씨 문중으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및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명예도민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명예도민 기념선물로 원 장관

에게 양구군 방산면 양구백자박물관장 정두섭 장인의 작품인 양구백자 1점을 선사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이해 특별자치도 1호 명예도민을 선정했다”면서 “원희룡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함께 노력했으며 명예도민이 되신 만큼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교통과 관광의 확충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시작인 만큼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늘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경제 06면

# 도내 세입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41억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급증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 상반기 강원도 내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올 상반기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년 하반기 대비 6배 늘어=18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19건으로 이에 따른 미반환 사고금액은 총 41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에 집계를 시작해 12월까지 3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 총 5억5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 계약 기간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지역별로 보면 올 상반기 원주에서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8억3,5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이어 춘천이 8건 19억500만원, 강릉이 1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못 받는 임차인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급증=이에 따라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



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0건보다 58.3%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으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올 3월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임차인의 피해 및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전세난 위험 여전 전세보증금 관리 시급=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역전세난

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만큼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배포한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 보고서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게 됐다"며 "전세가율을 제한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내지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하고, 보증금 예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규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 오늘 양양~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협약

양지역 관광 활성화·공항 연계 기대  
300억원 어촌신활력사업 추진도

양양군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 운항이 본격 추진된다.

양양군은 19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남한권 울릉군수 등 양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양(수산항)-울릉(현포항) 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울릉군을 방문,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동해안의 아름다운 어항으로 손꼽히는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양양군~울릉도 항로개설은 양양군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에 양양군과 울릉군이 공식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인허가 등 관련업무를 공동으로 추진, 정기여객선 운항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현포항을 연결하는 정기여객선 항로가 개설되면 동해안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뱃길로 양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는 물론 양양공항과 2026년 예정된 울릉공항 연계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항로개설을 위해서는 어항개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1면

발계획 변경과 접안시설, 공유수면 매립, 터미널 조성, 사업자 모집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앞으로 실제 여객선이 운항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성빈 양양군 어촌어항개발TF팀장은 "울릉도 항로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300억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와 인근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 어촌신활력사업에 선정되면 항로개설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 강원도민일보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 끝났다

청소년 공간 조성 등 사후활용 논의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1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및 붐업 조성방안 등을 밝혔다.

조직위는 "최근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등으로 산림엑스포의 화장실·안전시설의 관심이 이어져 해당 시설 보

완에 각별히 신경 썼다"며 "입장권 판매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해 도민 대상 입장권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지방정부와 국내 대사관계자 등 해외 관람객 유치를 확정하는 등 엑스포 붐업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산림엑스포주행사장은 세계잼버리수련장 등 21만 7893㎡이며, 부행사장은 고성·속초·인제·양양이다.

조직위는 생태·환경, 역사, 문화, 휴양, 산업을 테마로 5곳에 대형 전시관

2023년 09월 19일 (화)

종합 02면

을 설치했다. 산림엑스포가 개막하는 22일엔 정부 초청 인사와 국회의원, 필리핀 세부주지사 등 16개 해외 지방정부와 기관, 주한 대사 등이 대거 참석한다. 개막식에 선회환영 세리머니, 초대형 산림항공기의 산불 진화 시연, 축하 공연 등이 선보여진다.

조직위는 "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한편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장에 설치된 전시관과 조형물 등은 엑스포 이후 대다수 철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유산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건물 형태의 각 전시관은 바닥에 매트를 깔아 토양 훼손을 최소화했다"며 "향후 연구용역에서 해당 부지를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련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 강릉 국제관광도시 도약 호기

-외국인 관광객 급증, 맞춤형 인프라 마련해야

올해 상반기 강릉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한 해 동안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넘어서 주목됩니다. 세계합창대회 등 호재가 있었지만, 자연 증가한 해외관광객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강릉시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행사 유치와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할 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강릉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만 1915명으로, 지난해 방문한 10만 1196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강릉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시 외국인 방문객은 2021년보다 4배가량 급증한 10만 1196명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관광 택시 탑승객 역시 2021년 220명에서 2023년 7월 말 기준 261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2018동계올

림픽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인이 지켜본 가운데 열린 올림픽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릉을 홍보하는 장이 됐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BTS 촬영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죽헌과 선교장을 포함한 역사 명소도 관광객 증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및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야간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한편, 국제행사 유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 중심의 기반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음식, 교통, 환전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 패턴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관광 루트와 평균 체류 기간, 방문 빈도, 쇼핑 품목, 자주 찾는 관광지를 분석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 예산부족 국세 59조, 지역 여파 우려

-어려운 경제 지방재정 역할 중요 지방교부금 감소안돼

나라재정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9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금년 국세수입예산은 341조원으로 당초 수립한 예산 400조원보다 무려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2년 4/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금이 줄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발등의 불이 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제도가 지자체에 불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금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되므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연계해 줄어듭니다. 역대급 세수감소로 전국적으로 지방교부금 23조원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부족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총 4151억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 41조원 기금을 이용해 민생경제 활력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금 악화 지적이 나와 세수 부족 여파가 자칫 지방재정에 우선 직격타가 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또한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가 아닌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정책'을 위주로 하겠다고 밝혀 그 여파가 지역경제로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절하고 불용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간경제가 어렵기에 지자체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재부에서 하반기 재정 집행 실적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도 지자체간에서 허리띠 졸라매도록 부추기는 것이 나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막대한 세수부족을 메우는 근본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이 세수 추계 오차를 유발했다고는 하나 역대급 감소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제를 도입한 현 정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올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둔화됐습니다. 경제활력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세수부족이 민생 및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허약한 곳일수록 그 타격은 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혹독한 세수 대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구성원들이 양 대학의 '1도 1국립대' 사업 추진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원대에 따르면 구성원 의견 수렴 투표 결과 구성원 평균 찬성 비율이 73.8%로 집계됐다. 구성원별로는 학생의 찬성 비율이 82.14%로 가장 높았고, 교수 72.22%, 직원 67.05% 순이었다. 투표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대학 간 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14개 대학 26개학과에 달했다.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다.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도 3만3,000명에 이르렀다. 지방대의 대규모 미달 사태였다. 더욱이 올해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1을 넘지 않는 '사실상 미달'인 대학의 86.8%(전체 68개 대학 중 59개 대학)가 지방대였다. 정시에선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난립했던 신생 지방대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는 주요 거점 국립대까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된 데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시대 변화에 뒤쳐진 커리큘럼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설상가상 지방대의 미래 전

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예고된 미래'였던 학령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35만7,700명) 40만명 선이 무너졌던 연간 출생자 수는 2020년(27만5,815명)엔 30만명 선까지 뚫렸다. 20년 뒤면 현재 대학·전문대 총정원(55만5,000명)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구조다. 학생 수 감소는 대학 재정 악화로 직결돼 투자 위축, 교육 품질 저하, 입학 기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에 찬성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대는 지역 발전 기반의 핵심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학 간 통합으로 대학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구성원 의견 수렴 투표, 평균 찬성 비율 73.8%

통합대 학사운영 체계 등 치밀한 분석을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와도 잘 연계돼야

는 이미 혁신기획서를 통해 2026년부터 통합 강원대를 운영, 학사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강원자치도 내 주력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친화 교육과정, 다양한 교원 인사제도, 유연한 학사제도를 만들고, 강원자치도 내 학생 비율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대학 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대학도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이번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이 강원특별자치도 대학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 江原日報

2023년 09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취항에 거는 기대

지역 숙원사업인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첫발을 내디뎠다. 동해항이 환동해권 글로벌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해시가 대한민국 동해안의 해상 관문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동영해운(주)의 전용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동해항으로 입항했다. 이번에 취항한 선박은 8,000톤급(DWT) 규모의 최대 적재량 700TEU, 길이 121m의 전용 컨테이너선이다. 앞으로 두 달간 월 3~4항차가량 시범 운항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해진 일정에 맞게 주 1항차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 부산항을 오갈 예정이다. 동해항을 통해 우드펠릿, 이탄, 조식료,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중고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루트가 마련되는 것이다.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취항으로 동해시의 향후 포부도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는 2024년까지 동해신항 건설과 연계해 기존 벌크화물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동해본항은 고부가가치 항만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송정동 일대 54만㎡에 동해항 배후 물류 기능 단지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6억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송정동 물류단

지에는 철송장(2만8,000㎡), 철도CY(9만㎡), 물류창고, 화물터미널, 지원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밑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대 추가 지정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 동해사무소 유치, 송정동 일원 고려인촌(러시아마을) 조성 등 개항 이래 동해시의 변함없는 비전이었던 환동해권 북방경제시대 산업물류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동해항에 1조8,783억원을 쏟아붓는다.

한·러 카페리 운항,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사태 등으로 북방경제권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북방항로 거점항만 육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동해안 거점항만 지위를 두고 강원도와 경상도, 부산시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해항이 이를 뚫고 중심항이 되기 위해서는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항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동해시는 과거에도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했지만 하역 인프라 미비와 수출입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두 차례 정기항로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더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대표 관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